

7월 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경제+실적 우려’ 뉴욕 혼조..다우 0.5%↑	뉴욕 주식시장이 경제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쳤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44.13포인트(0.53%) 상승한 8,324.8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12포인트(0.51%) 하락한 1,787.40을,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2.30포인트(0.26%) 오른 898.72를 각각 기록했다. 주요 지수는 지난 주말 발표된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경제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와 어닝시즌에 대한 불안으로 하락세로 출발했음. 그러나 오후 들어 국채 입찰 수요가 견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우 지수가 반등함에 따라 혼조세로 접어들었고 장 막판 S&P500 지수도 반등에 성공했으나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로 마쳤음. 오는 8일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이자 다우 지수 구성 종목인 알코아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시즌이 개막됨. 톰슨 로이터의 집계에 따르면 S&P500 구성 종목의 2분기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36% 급감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 정부가 경제 전망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고 밝힌 것도 투자심리 위축에 일조했음. 반면 6월 서비스업 경기의 개선은 경제에 대한 우려를 다소 진정시키며 다우 지수 반등을 지지했음.
6월 서비스업 위축 속도 둔화	미국의 6월 서비스업 경기는 위축세를 지속했으나 속도는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6월 서비스업(비제조업) 지수가 전월의 44에서 47로 상승했다고 밝혔음. 이는 9개월래 최고치로 월가 전망도 웃돈 수준임. 마켓워치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는 46이었고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면 경기 확장을,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함. 주택판매와 소비지출 등 경제가 안정화 조짐을 보이면서 반세기만에 최악의 경기후퇴(recession)가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바이든 "美정부, 경제상황 판단 잘못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주말 ABC 뉴스 `디스 위크(This Wee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경제에 대한 상황 파악을 잘못했다고 밝혔음. 그는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킬 때 추정 실업률을 8%로 잡았다"며 "실업률이 두 자릿수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음. 바이든 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그린슈트(경기회복 징후)`의 기세가 당초 예상보다 강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제목	주요 내용
유가 `5주 최저`..	국제 유가는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로 5주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2.68달러(4%) 내린 64.05달러에 마쳤음. 이는 지난 5월27일 이후 최저치. 이로써 유가는 거래일 기준으로 나흘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음.
세계은행 "G8, 경기회복 낙관 말아야	로버트 질릭 세계은행(WB) 총재는 주요 8개국(서방선진 7개국 + 러시아)이 세계 경제 회복이 가까웠다고 추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의 낙관론에 대한 주의를 촉구. 질릭 총재는 "2009년은 여전히 어려운 해"라며 "최근의 경기 회복은 쉽게 되돌아켜질 수 있으며, 내년 경기 회복의 속도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음. 그는 "일부 선진국들은 경기 회복이 가까워졌다는 추정하에 정책적인 혼합(출구 전략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선 이런 조치를 생각하는 것도 너무 이르다"고 지적.
2020년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5년간 107조원 투입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총 107조원을 투자, 156만명에서 181만명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핵심 줄거리로 잡았음.
채권밖에 살게 있나..상반기 채권 장외거래 `사상 최대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권 장외거래량은 195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10조2,000억원(35.4%)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 일평균 거래량으로 환산하면 15조7,000억원으로 이 역시 전기보다 4조5,000억원(39.7%)늘어난 수치. 이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05년의 12조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에 역대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다고 금투협은 전망.
건설업 체감경기 6년반만에 90선 회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6일 밝힌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5.6포인트 상승한 92.2를 기록. 이는 지난 2002년 12월(102.0) 이후 78개월만에 90선을 회복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사상 최저치인 14.6을 기록한뒤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 건산연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증액과 조기 집행에 따른 공공수주 증가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분석. 그러나 7월 지수 전망치는 6월 실적치 대비 0.7 포인트 하락한 91.5를 기록, 향후 지수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